

한지장 김 삼 식

경북 무형문화재 30호

60년 '딱재이' 천년의 지혜 이어간다

“철썩~ 철썩~ 철썩~”

출렁이는 물질소리가 겨울과도 같다. 김삼식 한지장(69, 경북 무형문화재 제30호)의 물질 34번에 전통한지 한 장이 탄생했다. 팔꿈치까지 걷어 부친 김 한지장의 팔에는 탄탄한 근육이 울퉁불퉁 솜을 쳤다. 꼭 다문 입은 면벽(面壁) 60년의 부동심(不動心)이, 집중하는 눈은 살아 있었다.

김삼식 한지장이 만드는 종이는 천연재료만 사용하는 까닭에 날이 조금만 따뜻해도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패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그는 늦가을 한로를 전후에 한지 제작을 한다. 김 한지장은 물질을 하고 얼음덩어리가 된 손을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며 “물이 끓어도 손이 안 디어~”라며 활짝 웃어 보였다. 60년 딱재이(딱나무의 재)부터 한지제조 전 과정을 능숙히 할 수 있는 한지 장인을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의 웃음은 호방했다. 작업장에는 황촉규(황) 뿌리가 가득 실린 손수레가 보였다. 그는 황촉규를 화학물 대신 접착제로 사용한다. 작업실 뒤에는 콩대, 고춧대 등을 태워 만든 천연재가 모셔져 있었다. 양젓물 대신 표백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는 딱나무를 파종해서 기르고, 천연재를 만들고, 황촉규를 기르는 등 1000년 전 고려시대 선조들이 하던 방법 그대로 종이를 만들고 있다.

김삼식 한지장의 한지는 초조대장경 복원용으로 사용된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위원장 조상)는 초조대장경 2000여 권을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데 김삼식 한지장의 종이를 선택했다. 김삼식 한지장의 종이와 가장 유사할뿐더러 종이 질 또한 가장 우수했기 때문이다.

“올 봄 복원 간행사업 관계자들이 진짜 1000년 전 초조대장경 진본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한 눈에 제 종이(종이)가 고려지라는 확신이 생겼어. 고려지가 1000년이 간다고는 했지만 내가 1000년을 살아보지 않았으니 확인은 못했잖아요. 근데 대장경 원본을 보니 내 종이(종이)가 보이는 거라.”

초조대장경 원본은 글자 혹은 하나 안 바뀌고 반짝반짝한 고려한지 그대로였다. 고려한지를 만든 지 60년이 다 돼서야 김 한지장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이 ‘전통을 지켜나가 줘서 고맙다.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냐’고 말하는 데요.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무식꾼이예요. 무식꾼이 먹고 살기 살아야 해서 하게 됐어요. 사람이 진심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것 뿐이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통한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전통한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예요.”

초조대장경 복원 사용 전통 한지 여느 한지보다 20배 공 더 들어도 '삼식지소' 종이값은 1만 3000원

그는 10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시집간 누나 집에 살면서 친인척에 전해져 오던 전통 한지 가업을 이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람의 힘만 들이면 만들 수 있는 종이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작(조선탐)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맑은 물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4대째 내려오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종이 최고인 종이라는 신념이 있었다.

김삼식 한지장의 종이는 10년 전 아들 김춘호 씨(37)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고 하면서부터 더욱 빛을 발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가업을 잇는다고 했을 때 김 한지장은 쉽게 승낙할 수 없었다. 김삼식 한지장의 말대로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손이 100번이 가는 일인 “좀 모자라고 몰라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 또 전통을 이어

간다는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김삼식 한지장은 아들에게 ‘10원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3년간 객지에서 인생공부를 하고 오도록 했다. 그동안 김 한지장은 아들에게 최고의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 위한 연구 개발을 쉬지 않았다. 아들 춘호 씨는 한지대학을 다니며 이론까지 섭렵했다. 부자의 연구와 노력 끝에 이들이 만든 종이는 2009년 문화재청의 <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훼손 부분 복원에 사용됐다. ‘진실·양심·전통을 심는다’는 신념으로 내걸은 삼식지소(三植紙所)의 종이는 초조대장경 1000년을 맞았다. 시절인연이 딱 들어맞았다.

“내가 분심을 지켜 60년 세월을 지내다 보니, 나도 인정을 받았고 대한민국도 좋은 종이를 쓰게 됐어요. 때가 맞았지요. 어느 천년이 다가와서 또 이런 일이 올까요. 아들이 도와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을 했구나 생각해요. 우리나라 1000년 문화유산 복원에 쓴다는 것, 나라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종이라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나라도 운이 좋았고, 우리도 운이 좋았네요. ‘참 즐겁고 기분 좋다’라는 말 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천년대장경 작업은 보통 종이에 비해 20배의 공이 더 들어간다. 보통 종이가 한 장에 7000원이라면 이 종이는 20배를 더 쳐서 받아야 하지만 그는 1만 3000원만 받았다. 그는 아들과 늘 약속했다. 삼식지소의 종이를 값으로 논하지 않기를. 전통을 잇는데 자신들이 만든 종이 쓰인 것만도 감사할 뿐이기에.

김삼식 씨 이름을 걸고 묵묵히 걸어온 세월 60년. 대장경 1000년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종이에 나타났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삼식지소 : 문경전통한지 문경시 농암면 내서1리 122 (054)571-2848 mghanji.com



고려한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 <신라백자묵서 대방광불화엄경>(755년)은 보존 상태가 양벽에 가깝다. 딱나무를 사용한 닥종이로 1300년 남짓 그 형태를 오롯이 유지하고 있다. 이 2점은 통일신라시대의 종이유물로서 우리 고유의 한지가 천 년 이상이 보존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종이는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발명됐다. 105년 한(漢)의 채륜(蔡倫)이 생인피 섬유를 사용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량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반도의 제지 기술은 고구려 소수림 왕 372년에 불교 전래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지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과거 송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고려지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였다. 시인 소동파도 고려지를 즐겨 썼다고 전해진다.

지금상에서도 고려지를 사용했고 청나라 건륭황제가 말년을 보낸 권근제 역시 고려지로 도배했다. 고궁 창고 안에 보관 중인 고려지는 수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래의 색과 모양을 보존하고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종이의 발전은 고려시대 불경을 전하면서 본격화 됐다. 국가에서는 종이의 원료인 딱나무 재배를 장려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현종(1010~1031) 이후에 대장경 등 큰 인쇄사업이 계속돼 제지업이 매우 활발했다. 예종(1106~1122)에서 명종(1171~1197) 때에는 거의 100년간 전국에 딱나무 재배를 권장했으며, 민간 제지업을 적극 장려했음은 물론 관영공방을 두어 종이를 생산하도록 하여 제지업이 크게 발전했다.

고려를 이은 조선시대에도 제지업을 무척 중요시했다.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딱나무 밭을 만들게 하고 딱나무 재배를 시켰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목욕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 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했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설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반신욕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종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나햇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나햇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별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삼복 저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